

전통 음악과 우리의 정신

李 勝 烈

* 국립국악원 원장 *

음악을 통한 한국 정신의 재발견

이렇게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전통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울러 전통 음악 속에 녹아 있는 우리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모두 다 지구 지향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지구 사람들의 상격을 탐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탐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지구 사람들을 탐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자신들이 중간에 떠 있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명쾌하게 해설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 그러면 중화 사상(中華思想)이 떠오르는데, 아시다시피 중화 사상이란 것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상입니다. 홍콩을 2백 년이나 내버려 두어도 하는 말이, "2백 년 빌려준다고 그게 어디 가느냐? 결국 우리 나라에 그대로 있는 거지 어디 가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사무라이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다케시마 총리가 리쿠르트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25년 동안 그 총리의 경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할복해서 죽었어요. 또 경시청의 한 간부가 강력 사건 하나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할복해서 죽었습니다. 그 할복하여 자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배라는 것은 쉽게 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할복을 해도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쉽게로는 다른 사람이 뒤에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두 사람이 미리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성정(性情)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사무라이 정신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 보려고 노

려에 노력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안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책임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동반 자살을 합니다. 자기 혼자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개척 정신하면, 어떤 사람들은 "개척 정신이 어딴냐? 디스코트에 가서 아우성이나 치고 마리화나 피우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개척 정신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을 나중에 만나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보통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앵글로색슨족에 의해서 미국이 다스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니다. 예를 키우는 것이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남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도 '윈 프레이 모코쇼'를 보면, 여자들이 출연하여 남편들에게 얻어맞는 자신들의 여권에 대해서 토론들을 합니다. 마리화나 피우고, 디스코트에 가서 아우성치며, 머리를 장발로 기르고 다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지독하게 보수적입니다.

그전에 부시하고 듀카키스가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부터 듀카키스는 부시의 경쟁자가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백중세인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미국인들은 부시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듀카키스는 앵글로색슨계가 아니고 그리스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런 정신이 없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조선 시대의 선비 정신을 얘기하면, 아주 5백년이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달려들습니다. 선비 정신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들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알아보려면 우리 예술 속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예술 중에서도 특히 음악 속에는 우리 민족의 성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음악에는 모든 음악에 다 작곡가가 있습니다만, 한국 음악에는 작곡가가 없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련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음악에서는 저작권이 불필요했었습니다. "

전통음악과 우리의 정신

라시 우리 민족 전체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음악을 들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돌려 드리고 또 한번씩 불리 봄으로써 음악 속에 있는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고, 또한 우리 자신들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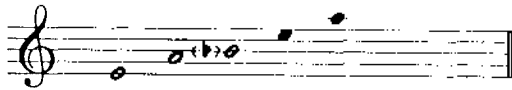
오늘 이 음악에 대한 강의는 일반 학교에서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30여 년 간 이 음악 속에서 살아보고 다시 하는 것이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비성적인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음계

음악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는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녔던 국악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듣지 마시고, 남에게 이 음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웁웁웅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웁웁웅 아라리가 났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음악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의 악보를 보면, 다섯 개의 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음표는 각각 마·리·시·미·라인데 여기서 시(Si)는 반음표 배열 수가 있고 마와 라는 각각 옥타브 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악은 어쩌면 3음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선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 음계는 5음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각 음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라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궁·상·각·치·우’로 노래를 불리 보려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평생에 ‘궁·상·각·치·우’로 노래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하면 그것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조선 왕조 세조 이후 ‘궁·상·각·치·우’라는 음계를 악보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이겁니다. 이상한 일이지. 그러나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들은 이 음악이 아마 3음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선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음악은 몸을 흔드는 데서부터

이제 제가 이 음악을 직접 불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르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방금 녹음기 속의 여자가 부른 것이 더 나은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리 보겠습니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웁웁웅 아라리가 났네.” 제가 부른 것이 이 녹음기에서 부른 것보다 더 낫다고,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정도가 손을 드셨는데, 이분들은 아마

서양화가 조금 섞였는지 아니면 서양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평소애 실 듣는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확실히 순수 한국인임을 알겠습니다.

사,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겨우 다섯 분만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저는 노래를 못 불렀다는 결론이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방금 부른 것은 박자도, 음정도 정확했고 목소리도 녹음기 속의 여자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잘못 불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세대 이후에는 제발 더 이상 이런 내용을 설명하러 다니지 않고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강의하러 다니면 행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 음악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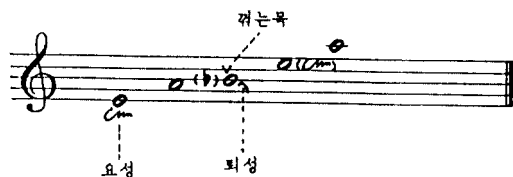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우리 음악에는 요성(搖聲)이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라는 것은 흔들다는 뜻인데, 우리가 요람(搖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녹음기의 역자는 소리를 흔들어서 불렀고, 저는 전혀 흔들지 않고 부른 것입니다. 저보고 제가 부른 노래를 스스로 재치하라고 해도 75집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흔들어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양 음악에서도 바이브레이션(vibration)이라는 게 있고, 바이올리니스트(violinist)들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보면 왼손을 막 흔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음을 떠는 것에 불과하고 음의 높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나라 음악의 이 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인터벌(interval)을 갖고 있습니다. 음 자체가 움직여 마리는 겁니다. 서양 음악에서 음을 떨기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음 자체를 흔들는데, 그 인터벌이 심할 때는 완전 4도에 가깝게까지 흔들어서이기도 합니다. 완전 4도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음역이냐? 도에서 파 또는 솔에서 도까지의 음역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 흔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흔들지 않고 부른 것은 바로 서양식으로 부른 것이고, 이 역자는 흔들어서 한국식으로 부른 것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더 맞는냐? 흔들어서 부른 것이 더 마음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자 음악에 있어서의 흔들는 것은 어떻게 흔들는 것이며, 흔들면 어떤 감정이 나오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음을 흔들어서 본 일이 있느냐 하면 없을 겁니다. ‘음악새’를 아무리 불리봐도 흔들어서는 않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떠드는 것도 다 흔들는 성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사람의 특수한 성질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런데 진도 아리랑에서는 흔들어서는 안되는 음과 흔들어야 되는 음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은 3개의 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음표는 흔들어야 하고, 두 번째 음표는 절대로 흔들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표는 뭔가 장식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음을 흔들는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좋은 의미의 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음은 상황할 때는 편잡지만 하행할 때는 반드시 낮은 음으로 흘러내려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흘러내려 온다고 해서 퇴성(退聲)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음악은 기본적으로 이 요성과 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겪는 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라리가 났네'에서 '가', '났'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될 것은 우리 나라의 민요라고 하는 것도 그 지방에 따라서 소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안도나 황해도 지방 음악은 서도 소리라고 해서 서도 민요, 서도 삼가라고 부르는데 그 모두가 신법(新法)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손들고 어떤 음이 주음이고 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충청 지방 음악을 경기 소리, 즉 경기 민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도 경상 일부, 충청 일부의 넓은 지역의 노래를 남도 음악 또는 남도 소리, 남도 민요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또 발생부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방인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에 이르는 지방을 동부 민요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민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 한 가지 우리 나라 음악도 시양 음악과 똑같은 장조와 단조의 음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조, 단조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선 왕조 중기부터 평조와 계면조라고 하는 우리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의 장조는 우리의 평조에 해당되는 말이고, 단조는 우리의 계면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에서는 무슨 장조니, 단조니 하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평조 또는 계면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진도 아리랑은 지역적으로는 남도 민요에 속하는 음악이고, 조의 성격으로는 계면조에 속하는 음악입니다. 말하자면 단조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나라의 모든 음악은 거의 다 요성과 퇴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남도 음악에 있어서 계면조의 음악일 때는 반드시 「겪는 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도 아리랑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남도 음악의 약 80%를 감상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는 외국인들과 접촉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우리 음악을 부려야 할 일이 생

길 겁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 앞에서 '보리밭'이나 '금강산' 같은 곡을 불렀다간 우리 음악이 자기 나라의 포크송과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오락새'를 불렀다간 우리 음악이 일본의 영가(鶯歌)와 똑같은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아주 고유한 우리 전통적인 음악을 부려야 한다는 얘긴데, 부를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별래섬은 얼굴로 아리랑을 부르는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나 마이크로네시아 사람들을 보면, 남자가 나와 가지고 춤추면서 재미있게 노래부르고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진도 아리랑을 부를 때 "창천 하늘에 잔별도 맑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라는 소절은 한 사람만 부르는데, 그걸 예긴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듣고 있다가 다같이 "아리 아리랑 소리 소리랑"하고 받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나 "문경새재는 환 고갯길. 구비야 구비 구비가 눈물이로구나." 그러면 다같이 "아리 아리랑"해서 매기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로서 존중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가 그걸 다시 받아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되는 연습을 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는 민요를 부르면서 하나되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노래 좀 해 보라고 할 때, "동구막 파수원 길" 같은 노래를 부르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리 아리랑"을 선창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따라하고, 그 다음에 혼자 독창하고, 또 "아리 아리랑"을 합창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우리 민요를 부르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민요를 부르는 형식이란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이 강의 처음에서 우리가 서양 사람을 닮을 수 없다고 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만든 민주주의를 우리는 완벽하게 실천하기도 어려운 민족임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전 세대 길지 않고 민주주의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6.25와 함께 들어온 미군들이 보여준 것이 민주주의인 줄 잘못 알고 자라왔습니다.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민주주의가 뭔가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배우셨을텐데,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우리 나라 4천만 국민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건을 3가지로 보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하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는 건 좋아해요.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남의 말 듣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하자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남의 행편을 잘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내 행편을 얘기함으로써 두 사람의 행편이 완벽하게 서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민주주의를 하려면 타협이 돼야 합니다. 이걸 만들어 내지 못하면 민주주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협이 되면 그것을 지켜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서로 원천한 이해가 되기가 어렵고 또 이해가 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고집하고 타협이 잘되지 않습니다. 또 타협이 된다고 해도 대표가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 사람들이 타협하지고 해서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고 해서 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하면서 다른 말을 합니다. 서로가 만나서 합의했으면 그대로 믿고 사복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돌아와서도 그렇게 하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의 문생이라든지 말하는 것 등을 보면, 대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개 서론부터 얘기합니다.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말을 합니다. 본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할 말을 수가 없죠. 본론에 들어가면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구나.”하면서 결론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끝에 가서 결론은 이러다.”하고 끝마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다 아는데 누가 듣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마음이 급해서 서론부터 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수십 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 데 있어 좋지 않은 습성입니다.

우리 전통 음악의 분류

그러면 우리 나라의 음악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잠깐 살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여러분들이 무슨 음악이 필요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보다는 조금 더 애용되던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가라고 하는데, 이 잡가는 알아서 부르는 화창이 있고, 서서 부르는 일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소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화창은 민요보다는 긴 노래에서 “간 잡가”라고도 하는데 사실적으로 단아하게 부르는 노래이고, 일창(立唱)은 소리패들이 장구를 맨 도창(導唱)에 따라 벽구(索鼓)를 든 사람이 춤을 추며 서서 부르는 소리인 직직하고 재밌한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판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완전히 즉흥 음악인 시나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악사들이 세가지 자기 음이음 연주합니다. 그래도 통일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구곡인 살고가 있습니다. 서양 음악의 소나타 음악과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는 음악 형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풍곡 음악들이 있습니다. 무가(巫歌)와 절에서 부르는 범패(梵唄), 그리고 농악이 있는데, 이 농악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처음 발입니다. 우리는 풍상이니, 두레니 이렇게 빌렸지 농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인들에 의해서 농악이라는 말은 농사짓는 소박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악에서 파생된 사물놀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말하자면 서양의 대중 음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민속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중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궁중 음악도 제례 음악, 의식 음악, 민례 음악, 군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례 음악은 역대 임금의 위패를 모셔 놓고 제사 지내는 종묘(宗廟)나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낼 때 연주되는 음악이고, 의식 음악은 임금이 참여하는 이천회의 같은 때 연주되는 음악이고, 민례(宴禮)음악은 임금이 주재하는 연회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인(中人) 이상 지식 계급에서 연주된 음악인데, 다시 풍류(風流)와 정가(正歌)로 나뉘집니다. 이 풍류라는 것은 기악 음악을 말합니다. 앙상블 음악이죠. 그래서 현악기가 위주인 음악들은 줄풍류(絃=絃)라고 하고, 관악기가 위주인 음악들은 대풍류(笛=簫)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관악기는 대부분 대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풍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가라고 하는 것은 상악을 말하는데 이것은 가곡(歌曲), 기사(歌謠), 시조로 나뉘집니다. 이 중에서 가곡이 가장 격조가 높은 음악이고, 시조는 가장 시민적인 음악입니다. 그래서 궁중 음악과 정악을 합쳐서 큰 의비의 아악(雅樂)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악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하고, 방법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쉽게 우리 음악을 분류해 보면 대개 이렇게 큰 두 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과 우리 음악의 차이

그것은 바로 음악의 정신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 지식 계급에서 연주되었던 음악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라고 하는 시조를 잠깐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도 생이한 음악으로 부르는 시조를 평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소리로 살려 부른다고 해서 지름 시조라고 하고, 또 상형 시조가 있는데 이것은 텍스트가 길고 춤추며 말할 붙여 간다고 해서 사설 시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집니다.

평소에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궁중 음악이나 정악 같은 것을 물어주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뭐 그래?”하면서 전부 별래업은 얼굴이 됩니다. 그때 “이 사람 왜 그래?”하고 물어보면, “왜 그렇게 느려?”합니다. 이렇게 느린 음악은 끈 끈기 싫은 음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느리다고 하는 것으로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느린 음악은 느린 음악대로 좋고, 빠른 음악은 빠른 음악대로 좋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본래 빠른 음악을 좋아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대개 표시된 속도보다 느리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배에 도넛의 운명 교향곡 같은 것이 나오면 “야! 좀 끝 수 없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이 복잡하고 리듬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음악을 이해하는 정서가 서양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빠른 음악은 경박한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점잖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조를 우리식으로 또 서양 음악식으로 불러 봅니다. 여러 분들이 들으신 대로 서양 음악식으로 하면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음악은 흔들지 못하는 악정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나라 음악은 흔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양 음악이 좋게 들리느냐 하면, 서양 음악에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새 슬피우는'하고 부를 때, 뒤에서 '뿡삭 뿡삭'하니 자기도 모르게 '음악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화성이 있는 음악이 우리 귀에 들리려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느냐면, 화려하고 입체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들이 화장한 얼굴과 안한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얼굴이 더 예쁘니까?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 중에 못생긴 여자는 하나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얼굴에 아예 그림을 완전히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화장을 지운 얼굴을 보면, 낯할 때는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은 화장한 얼굴과 같고, 우리 전통 음악은 화장하지 않은 얼굴같이 평면적으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화성이 있는 음악과 없는 음악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그럼으로도 색채화와 목화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진도 천연색 사진과 흑백 사진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사진일수록 저는 아직도 흑백 사진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화를 보면 아백이 많아서 좋고, 선이 그렇게 아름답을 수가 없고, 농(濃)과 담(淡), 흑과 백의 대비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서양화는 아무리 봐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구구곡선까지 전부 색칠을 해 줘요. 아랫까지도 그림 위에다 세 배 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도 아래에도 여백이 많습니니다. 그러니까 위엔 열두 달 두고 봐도 심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문화의 양태입니다. 서양 음악을 갖게 끝에서 부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은 길게 끌고 가질 못하기 때문에 분절하는 쪽으로 발달해 갑니다. 기호학이라는 거 아시죠. 기호학이란 전부가 나누는 겁니다. 동그런 것을 반으로 나누고, 다시 그것을 계속해서 반으로 나눠서 전부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데 뭉뚱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도 한 밥상 위에 잔뜩 차립니다. 그래서 상다리가 휘어진다든 말이 있어요. 잘 차려진 4인분상 위에는 찹시나 그릇이 42개 정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다리가 안 휘어지겠어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하나씩 다 먹기까지 지켜 보고 있습니다. 두 시간쯤 먹든, 세 시간쯤 먹든 가만히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안 갖다 줍니다. 다 먹은 후에야 새 요리를 가져옵니다. 한번에는 한 요리의 맛만 즐기는 것이고 우리처럼 이것저것 한입에 넣지 않습니다. 그게 서양적인 사고와 우리의 사고의 차이입니다.

제가 부른 시조를 멋있다고 느꼈다는데, 이 시조가 무엇 때문에 좋다고 느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봅시다. 시조가 가지고 있는 약상, 즉 익스프레션(expression)은 뭐냐 하면, 우선 순차적입니다. 절량고, 한가하고, 깨끗하고, 우근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조를 듣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조를 듣고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의 인격은 그것과 닮은 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좋아지는 것은 자기의 인격이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친화력을 갖는 겁니다. 사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좁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래 그 사람이 좁은 사람아 아닙니다. 서로 알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진도 아리랑과 이 시조를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두 음악을 비교해 보면, 같은 곳에서 같이 흔들고 같은 조성(調性)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조가 가지고 있는 것도 계면조이고, 진도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계면조의 같은 모드입니다. 그러나 음악의 정신은 매우 다릅니다. 진도 아리랑은 예술 가곡을 부르듯이 그냥 순박하고 서서 부르면 어울리지 않고 답답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불러야 제대로 맛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조도 춤을 추면서 부른다면 미친 사람으로 인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절상계 마음을 가다듬고 정화해서 불러야 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노래가 갖는 음악 정신의 차이점입니다.

민요는 민요대로 흥겹지만 깊이가 없고,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이런 민요만 즐기는 사람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음악을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멋있고 점잖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단세포적인 시·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 시험 제도를 전부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사지 선다형이나 O×문제는 절대로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한용운의 시(詩)에서의 '님'과 이광수 작품에서 '님'의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세 시간쯤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을 써야지 책에 나온 것을 그대로 베끼면 학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것을 쓰도록 하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못 내는 것은 교수가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러한 수준이 인되는 데도 점수를 좋게 줄까 봐서 못하는 건데, 사실 그러한 시험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단세포 동물처럼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지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곡을 불렀습니다. 저는 본래는 가야금을 전공했고 가곡이나 성악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연주회 때 독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노래를 안 부르고 있다기 유니세프를 듣는 문화 예술의 밤에서 처음 불렀는데, 그것은 "동창이 밝았느냐"라는 가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느린 음악인데, 이런 음악은 남에게 들려주는 음악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즐기는 음악입니다. 음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악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있고, 어떤 음악은 그걸 많이 부르고 나면 기쁘지는 음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디스크장에서 신나게 한 시간쯤 흔

전통음악과 무미미 정신

들고 나서 집에 갈 때 보세요. “아, 저 속이 다 후련하다.” 하면서 걷니까? 어딘 걸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허무해서 거기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걸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된 것 같지만, 기(氣)를 다 발산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다시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곡이나 시조 같은 것은 두 시간만 부르면 그 자체가 단전 호흡이에요. 시양 음악을 할 때의 호흡과 조금 다릅니다. 숨을 꼭 들이마시면서 배를 딱 내밀고 힘을 주면서 거미가 줄을 내리듯이 숨을 깊게 내 줍니다. 그런 두 시간만 하고 나면 몸이 가뭇해집니다. 옛날에 부엌 소일 속에서 장풍을 날리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해가 잘 안가지만 ‘경공’이라는 것 한 가지만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몸을 가볍게 하는 내공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모두 다 기(氣) 운동입니다.

아무튼 그런 한두 시간만 부르고 나면 몸이 가뭇해질 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중만감이 오고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참 묘하죠. 그리고 나서 맥주를 한잔 마시면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니불 먹고 볼 마시고 뱀을 배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 하면 족하다.”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게 그렇게 생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민속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내용과 정가 또는 아악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 두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요만이 우리 음악의 전부가 아니라, 예술 음악, 순수 음악과 같은 멋진 음악이 우리 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계 체계의 탐색

이제 느린 음악은 나쁜 음악이라는 고정 관념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서양 음악도 서양에 서적은 궁중에 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모두 귀족들의 음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서민 음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정가 또는 아악과 같은 음악들이 우리 음악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할 못하고 민요만이 우리 음악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음악적으로 보면 아주 낮은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1989년도인가 노태우령에서 유럽 4개국을 방문했을 당시 우리 음악인들이 그 나라에 먼저 가서 연주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헝가리와는 수교 직후였는데, 헝가리의 부나페스트에 있는 ‘내셔널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할 허가가 중간 휴식 시간에 그 나라 국회의장이 저에게 오더니 “당신네 나라 음악이 5음계요?”하고 묻는 거예요. 저는 망학 놀라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아십니까?”하고 물었더니, 자기네 나라 음악도 옛날에는 5음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네 음악이 많이 서양화되어 그렇저, 아직도 헝가리의 동부 지방에 가면 아시아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핀란드 말과 헝가리 말이 우리 나라 말과 같은 우랄-알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순(語順)이 같은데, 지금도 헝가리 사람들의 반이 용고 반정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멀어져 있어서 그렇지 고대에는 다 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좌우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나라 음계를 5음계로 알고 있죠. 제가 미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중국 전통 음계는 7음계가 대부분이고 6음계와 5음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5음계가 많고, 6음계, 7음계가 조금 있습니다. 6음계, 7음계라고 해서 모두가 다 중국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6음계, 7음계 음악도 만들어 낸 겁니다. 이것은 쟁조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계면조로 가면 우리 음계는 5음계, 4음계, 3음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3음계, 4음계가 5음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음악이 5음계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음계에서만도 우리는 중국 음계, 일본 음계, 서양 음계와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음악의 즉흥성

그 다음에 리듬을 보더라도 서양 음악의 구간을 이루고 있는 리듬은 4박자입니다. 합조를 빼고는 3박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설마 한 작곡품 들어 보더라도 $\frac{3}{4}$ 박자의 음악이 현미줄 니움까 말까 합니다. 모두가 4박자입니다. 이런 것은 중국 음악이나 일본 음악도 똑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만 3박자가 구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3박자만 있는 게 아니라 4박, 5박, 6박, 8박, 9박, 10박, 11박, 12박, 16박, 18박, 20박, 25박 등 박자의 종류가 많아 서양 음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3박자라도 서양 음악과는 전혀 다른 액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진도 아리랑의 첫 소절은 “문경 새재는 뉘 고갯길 구미야 구미 구미가 눈물아로구니”하고 평범하게 부르다가 둘째 소절에서는 “청천 하늘엔”하고 지릅니다. 멜로디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도 “노다 가세 노다나 가세 저 달이” 처음 나직하게 부르다가 “멋다 지도록”하면서 기이이 지르고 됩니다. 참 묘하죠. 백 사람이 얘기하면 백 사람 나 얘기는 게 다릅니다. 다분히 즉흥적입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즉흥적인 민족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도 “너, 내일 나올래?”라고 물으면 “알았어, 나올게.”하고 대답해서 헤어집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에 그 사람이 실제로 나와야 나오는거지 나타날 때까지는 그 사람이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 사람들은 법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당히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늘으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음악은 곡선적인데 비해 서양 음악은 직선적입니다. 비례는 쪽쪽 뾰는 스트레칭이지만 우리 나라의 투용은 곡선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 사람들은 돈을 뭐 달라고 해도 “아, 돈 좀 뭐 뭐!” 이렇게 하는 건 무지박자한 사람이고 대개 한참 동안 세상이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헤어질 때쯤 해서 “너, 혹시 돈 있냐?”하고 물어 봅니다. 이와 같이 직선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풀려서 얘기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저는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시구 사람을 싫어하면 좋겠어요. 약속하면 약속 지키고, 법이 공포되면 공포된 대로 질 지키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서양

사람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것만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를 수립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교육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악장과 장점을 미리 알고 출발한다면 그만큼 폭넓은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악·당악·향악의 역사

과거 고려, 조선 왕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악(雅樂), 당악(唐樂), 그리고 향악(鄉樂)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악이라고 했던 것은 임금이 제사지낼 때 연주하던 음악인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곧지 보에 제사지낼 때 쓰는 음악입니다. 상간관 대학교에 문묘(文廟)라는 게 있어요. 공자와 제자들의 위패를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문묘제례악은 이 제사에 쓰는 음악입니다. 이렇게 왕이 하늘과 땅과 조상과 신인(神人)에게 제사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이나 문묘제례악 등을 아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궁중 음악과 정악을 합쳐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아악이란 말과는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악은 고려 예종 9년과 11년, 두 번에 걸쳐서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서기 1114년경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아악이 들어왔다고 하나까 지금의 아악이 전부 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때 아악이 들어왔지만 고려가 망하면서 그 음악, 악기, 음악인들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임금이 제사지낼 때 써야 될 음악, 악기, 사람이 없어서 큰 고민이었다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 박연이라고 하는 학자를 만나서 아악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 때 송나라에서 들어온 아악을 부활시킨 게 아니라, 그 시대보다 훨씬 오래 전에 있었던 주나라 시대의 문헌과 제도에 맞도록 다시 만든 건데, 한국인이 한 것이므로 엄밀하게 중국 음악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4분짜리 음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음악에 아악이 있다는 말은 도대체 처음부터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악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일반 음악, 그것은 아악이 아니라 바로 당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이 당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갈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악이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이다." 그러면 그건 처음부터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악이라고 하는 것도 임진왜란 때까지만 연주가 되었지, 임진왜란 이후에는 전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들어온 당악 중에서 15분짜리 음악 두 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편마저 완전히 한국화되어 버려서 중국 음악적인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당악풍의 음악 또는 당악제의 음악이 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순히 당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나머지 세 번째 것은 향악입니다. 향악이란 한국에서 작곡된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중에서 연주되어 궁중

음악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당악이나 아악이 아니라 모두가 향악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 두십시오. 다만 그것이 중국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당악 제종의 음악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당악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아악을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중국 음악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수나라 시대에 그 나라에서 연주되었던 7가지 음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칠부기'(七部伎)라고 합니다. 그 칠부기 속에 고려 음악이 반드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에도 '구부기'(九部伎)라고 하는 9가지 음악 속에 고려 음악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음악과 우리 음악이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교류를 갖고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극일(克日)은 전통 문화를 다시 찾는 데서부터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5세기 이전부터 우리가 음악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르쳐 준 음악이 바로 오늘날 일본의 아악이고, 그 다음 8세기가 돼서 비로소 당나라 음악이 일본에 전해져서 역시 아악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고대 한국 음악과 당나라 음악이 일본 아악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본 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궁실 안에서 왕가(王家)를 위해서만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그걸 비밀 수는 있고, 그것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고대 한국 음악이나 중국 음악이라는 사실이 지루 뵈히지기 때문에 그것을 침묵 밖으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국왕의 교를 파헤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것이 한국 사람이 있다는 흔적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일본의 모든 것은 다 한국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1812년까지 계속되다가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뒤지기 시작하는데, 한 세기도 가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침략 당하고 맙니다.

일본은 우리 문화를 잘 받아들여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 나라가 일본에서 문화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서구라파 사람들은 상류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를 보통 사람의 것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과거 하류 계층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문화를 다시 건설해야 우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고 극일(克日)할 수 있는 것이지, 소리만 높여서 아우성친다고 극일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재 강의를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음악과 우리의 정신



약력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총독 음악학 연수
- 한국음악교육협회 이사
- 사단법인 국악학회 감사
- 국립국악원 학사장

현직

- 국립국악원장

저서

- 가야금 교착본